

## [조흠의 영화이야기] 〈기생충〉과 국가적 알레고리

〈Parasite〉 As National Allegory

---

저자 (Authors)	조흠 Heup Cho
출처 (Source)	<a href="#">대한토목학회지 67(10)</a> , 2019.10, 76-78(3 pages) <a href="#">JOURAN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67(10)</a> , 2019.10, 76-78(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한토목학회</a>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745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7459</a>
APA Style	조흠 (2019). [조흠의 영화이야기] 〈기생충〉과 국가적 알레고리. 대한토목학회지, 67(10), 76-7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기생충〉과 국가적 알레고리 〈Parasite〉 As National Allegory

조흠 | Heup Cho | 문화연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갖는 특징 중 하나가 어느 한 장르로 작품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생충〉이 좋은 예다. 시작은 평범한 가족이 등장하는 드라마다. 곧이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영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렇게 진지한 순간에 갑자기 터지는 유머로 관객을 무장 해제시킨 뒤 다시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스터리적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영화의 장르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에 더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슬래시의 충격을 선사하기도 한다. 장르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만큼이나 영화의 여운은 혼란스럽게 지속된다. 이는 오락으로 본 영화가 오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파고드는 정치 담론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리얼리즘 형식으로 이런 영화의 여운을 성취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픽션에 담겨있는 여러 갈등이 현실로 전이되기 이전에 리얼리즘의 형식이 텍스트에서 제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객은 이 과정에서 이야기에 수동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픽션의 갈등을 현실의 문제로 연장시키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만약 영화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다면, 이런 리얼리즘 형식을 사용하기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극영화의 재미를 추구하는 대신 다큐멘터리의 충격적이지만 교육적인 내용을 먼발치의 시선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이다 (Kplan 1983).





그러나 봉준호의 영화는 극영화가 제시할 수 있는 온갖 재미를 모두 제공하면서도 영화가 끝날 즈음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그의 영화는 사실주의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것 같은 세밀한 현실의 묘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 정교한 일상의 파편들은 얼핏 서로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그 해프닝이 자주 웃기는 상황을 연출하지만, 종국에는 이 각각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봉준호 영화에서만은 텍스트 내의 갈등이 충분히 현실로 전이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봉준호 영화는 웃기면서도 슬픈 '웃픈' 블랙 코미디의 요소가 강하게 배어있는 사회 비평적 이야기인 것이다.

〈기생충〉은 바로 이 봉준호만의 독특한 비판적 관점이 작품의 성공에 큰 몫을 한 영화다. 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반 지하 공간에서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 작품 같은 저택에 거주하는 사장 가족들을 상대로 펼치는 사기극에 관한 것이지만, 그 심층적 의미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극심한 빈부 격차를 다룬 계급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 거창한 주제를 결코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반 지하의 공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성공한 신흥 재력가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과 대비시킴으로써 저절로 계급적 차이를 터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 두 극단의 경우를 직접 경험하기보다 상상으로 짐작만 하던 대다수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깨우침의 시간인 것이다.

〈기생충〉은 현실 묘사가 뛰어난 사실적인 텍스트지만 그것만으로 영화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영화가 배경이 현대적이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묘사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약자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리얼리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만, 동시에 알레고리적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 캐릭터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운명에 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여러 해석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 영화가 알레고리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탈 맥락화 해서 다시 재 맥락화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가 풀어낸 이야기는 한국의 절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갈등적 경험을 대변하는 국가적 알레고리로 기능하는 것이다.

국가적 알레고리는 원래 서구 자본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3세계의 문화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으로 알려졌다. 서구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적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제3세계 공간에서는 이 사적인 서사가 결코 개인적 층위에 머무를 수 없고, 대신 문화 사회적 영역의 갈등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인생사도, 비록 알레고리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사회 전체의 경험, 즉 국가적 알레고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Jameson 1986). 이런 주장이 비서구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무시한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제작/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주)바른손이엔터테인먼트 15세 이상 관람가

2019 봉준호 감독 작품 | 5월 30일 대개봉

기생충

채 현실을 전체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기생충>에 대입해보면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니다. 더구나 감독이 알레고리를 처음부터 의도한 터라 영화가 국가적 함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한 관객의 공감대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압축 성장으로 국가 경제와 생활수준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에 비례한 만큼 돌아가는 혜택이 일부에 편중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다수는 경제 성장으로 축적된 부를 공평하게 나눌 것을 주장하지 않고 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생충>에서 기택(송강호) 일가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 일할 기회인 것이다. 온 가족이 사기극을 통해서 아들(최우식), 딸(박소담), 아버지 그리고 엄마(장혜진)가 차례로 박 사장(이선균) 집에 취직한다는 설정이 우화적이지만 설득적인 것은 그만큼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계급 갈등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해 고전 이론을 재해석해 보여주고 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한 상황에서 다수가 소수의 기생충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 이때 예상되는 결과는 맑스의 노동자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전복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안락함에 익숙한 다수, 즉 노동자(기생충)끼리의 사투인 것이다. 이는 기택의 가족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존재 자체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경쟁자와 혈투를 치러서라도 현재의 위치를 보전해야만 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포착한 그들이 주어진 것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공존 대신 상대의 파멸을 선택해야만 한 것이다. 삶이 투쟁의 연속인 것은 강자에 해당되기보다 약자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약자들끼리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우연하게 수반될 수 있는 이차적인 비극적 파국에 있다. 다수의 상시적 투쟁에서 벗어나 안정망 속에 존재한 것 같은 소수의 국외자에까지 이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영화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 사장의 경우, 사악한 자본가와 거리가 먼 기업가로서 기택의 가족 모두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희생물로 전락한다는 사실은 심화된 빈부격차가 그들의 병리적 장애를 촉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택의 돌발적 행동은 특별한 동기나 대상이 없이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영화는 바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이 현재 한국의 현실에 만연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기생충>이 국가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 참고자료

- 1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 15, Autumn, 1986.
- 1 Kaplan, Ann. Women and Film: Both Sides of the Camera, Methuen, 1983.

## WRITER INTRODUCTION



**조희 문화연구**가는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연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언론대학원 대우교수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문화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정치와 문화사회학이 주된 연구관심사이며 저서로는 <문화정치와 감성 이론>, <영화의 정치다> 등이 있다.

ceehcee@yahoo.com

기획 | 사무국 solasys@ksce.or.kr